

여수서 한·중·일 'e-스포츠' 최강자 가린다

다음달 15~17일 엑스포컨벤션센터...엔데믹으로 올 첫 대면대회 4개 종목 리그 상위 2개국 결승...학생·가족 단위 관람객 참여 유도

한·중·일 e-스포츠 강자를 가리는 첫 대면 대회가 여수에서 열린다. 여수시는 '2023 한중일 e-스포츠 대회'가 오는 12월 15~17일 사흘간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고 1일 밝혔다.

한국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한중일 대회'는 지난 2021년 한국에서 처음 열린 이후 올해 세 번째 열린다.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올해 처음 대면 대회를 치른다.

한중일 e-스포츠 대회는 한국·중국·일본 3국이 주도하는 최초의 정식 이스포츠 국가대항전이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개최지를 모집하고, 추진 의지와 행사장, 관람객 확보 등 7개 분야에 대해 현장 평가를 벌였다.

이후 여수시가 대회 개최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여수시는 970석 규모인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처음 이스포츠 대회를 치를 계획이다.

한국e스포츠협회와 전남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지속해서 회의를 열어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관람객과 지역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연계 부대 행사를 마련하고,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3 한중일 e-스포츠 대회는 4개 종목으로 구성, 종목별 리그 상위 2개국이 결승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 종목 등 세부 내용은 정해지지 대로 한국e스포츠협회 공식 누리집 등에 게재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달 막을 내린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 e-스포츠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대회는 한국 이스포츠 문화산업 발전을 이끄는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한·중·일 e-스포츠 강자를 가리는 '2023 한중일 e-스포츠 대회'의 첫 대면 대회가 여수에서 열린다. 970석 규모 관중석을 갖춘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컨벤션센터 전경. <여수시 제공>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 할인 중단

예산 10억원 소진...지류형 보성사랑상품권 10% 할인은 유지



보성군 주민이 오일시장에서 지류형 보성사랑상품권으로 농산물을 사고 있다. 올해 발행한 카드형 상품권 100억원어치는 모두 팔렸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이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 발급을 위한 올해 예산 10억원이 소진되면서 판매를 중단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9년 도입한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은 올해 배정된 100억원어치가 모두 팔렸다.

10% 할인 판매를 위해 책정한 예산 10억원도 소진됐다.

지류형 보성사랑상품권은 10% 할인 판매를 유지한다. 가까운 지역 금융기관 33곳(우체국 제외)에서 상품권을 살 수 있다.

올해 지류형 상품권은 212억원을 발행했으며,

모두 팔릴 때까지 판매를 이어간다.

지류형 상품권은 1만원권·5만원권 등 2종류로, 1인당 월 70만원(연 840만원) 한도로 판매한다.

정책자금으로 지급한 보성사랑상품권은 60억원 상당으로, 올해 발행한 보성사랑상품권은 모두 372억원어치다.

보성군 관계자는 "내년 지역화폐 할인 판매를 위한 국비·도비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수요조사를 거쳐 발행액을 결정하겠지만, 내년 발행액은 전년보다 줄어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성=김유백 기자 kyb@kwangju.co.kr

광양시 무료 시내버스 1만3000명 혜택

65세 이상 복지교통카드 발급...읍·면·동사무소서 연중 신청

광양시가 1일부터 시행하는 '65세 이상 무료 시내버스 이용사업'에 신청 대상의 60%인 1만 3000명이 참여한다.

광양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2만 2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1만 3000명이 시내버스 무료 이용 카드인 '복지교통카드'를 발급받았다.

광양시는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6일까지 카드 일제 신청 기간을 운영했다. 광양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카드 신청을 받기로 했다.

광양시가 이번 사업을 위해 세워놓은 예산은 올해 2억원, 내년 8억원이다.

무료 시내버스 이용사업에 벌이기 위해 올해 6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마쳤다.

지난달에는 '광양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사업비를 확보했다.

복지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주)광양교통 운영



시내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광양지역에서 운행하는 순천교통(77-777번)과 여수여객(610번) 노선은 이용할 수 없다.

이달 현재 광양지역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기준 현금 1500원, 카드 이용 때 1400원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앞으로도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낭만 계절 가을, 순천만 갈대밭에서 감성 충전

4~5일 순천만갈대축제 흑두루미춤·탐조 행사 등 다채

순천만 일대에서 오는 4~5일 '24회 순천만갈대축제'가 열리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여운을 이어간다.

올해 갈대 축제는 순천만습지에서 별량 거차마을과 해룡 유릉마을까지 장소가 확장됐다.

축제 주제는 '가만히 들어주기'이다.

바쁜 일상과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순천만이 들려주는 자연의 소리를 가만히 들으며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제안하는 마음을 담았다.

개막행사는 순천만습지 잔디마당에서 대대마을 주민들이 풍년과 주민 화합을 다지는 전통 세시 풍속의 하나인 용줄다리기로 시작한다.

용줄다리기는 서면마을에서 시작해 개막식이 열리는 순천만습지 잔디광장으로 도사동주민센터 길놀이 때와 함께 이동한다.

개막식이 끝나고 무진교 앞에서는 순천의 상징 흑두루미 춤, 전자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언플러그드 연주회', 자연의 움직임을 인간의 몸짓으로 표현한 생태 춤이 펼쳐진다.

거차마을에서는 날매 경주·제작 시연, 순천만에



오는 4~5일 순천만 일대에서 '24회 순천만갈대축제'가 펼쳐진다. 지난 2021년 축제장에서 진행한 농악 길놀이때 공연. <순천시 제공>

서식하는 각종 새를 관찰하는 탐조 행사가 열린다.

유릉마을에서는 순천만에서 나는 문철이(망둥어)·대쟁이(개소쟁)·꼬막·갈대 뿌리를 이용한 음식이 마련되며 마을 마실과 생태 탐조 여행이 기다리고 있다.

순천만갈대축제 행사위원회 관계자는 "갈대 축제를 통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고 순천만 보전을 위해 주민·행정·시민사회가 힘을 모으는 협업이 작동하는 공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에서 밥만 먹어도 여행 인센티브

군, 체험·숙박·버스임차비 지원...1인 1일 최대 5만원

곡성군이 겨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여행할 때 곡성어때'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여행할 때 곡성어때'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체험상품비, 숙박비, 버스임차비를 지원해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여행 기간 중 곡성 내에서 2회 식사를 해야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단기 체류형 관광객이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했다.

군은 여행 1일당 1회 식사로 완화해 당일 여행객들도 인센티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여행기간 내 점심장 거차마을을 1회 방문하고, 레일바이크, 증기기관차 등 곡성의 체험프로그램을 2회 이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센티브는 체험상품비의 50%가 지원돼 1인 1일 최대 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숙박비는 객실당 하루에 3만원, 버스 임차비는

하루에 1대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관광 인센티브는 개별 관광객 뿐만 아니라 단체 관광객을 모집한 여행사나 농촌체험마을에도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신청 방법은 여행 전 인센티브 사전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여행 후에는 인센티브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방문사진 등의 증빙서류를 작성해 곡성군 관광과로 우편을 보내거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한 만큼 관광객의 긍정적인 반응이 기대된다"면서 "이를 통해 겨울철 관광 비수기에도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

고흥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주민설명회

6~17일 16개 읍·면 순회...지선·간선 체계 도입 등

고흥군이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주민설명회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이장단·부녀회장 회의 일정에 맞춰 16개 읍·면을 돌아가며 개최한다.

고흥군은 농어촌버스 노선 체계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운행 체계를 도입하고자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지선·간선 체계 도입과 노선 통합 등 개편 내용을 전달한다.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고흥군은 지난 7월 노선 개편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8월에는 대면·비대면 방식 설문조사를 벌였다.

지난 9월에는 운수업체 3곳과 노선 조정 사항에 대한 업무 협의를 했다.

고흥군은 연구용역 초기부터 노선 개편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의견을 내면 2차 설명회도 열 생각이 있다.

고흥군은 현행 운행노선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 3개 운수업체와도 지속해서 소통할 방침이다.

이용자-운영자-관리자가 모두 만족하는 개편 전략을 수립하고 단계별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현지 여건에 맞는 노선 운영과 교통 수요에 맞춰 노선을 정비해 군민이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군민들은 누구나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4~5일 '지리산피아골단풍축제'

구례군, 가스·전기·소방 점검

구례군이 4~5일 개최하는 '47회 지리산피아골 단풍축제' 안전 점검에 나섰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난 30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리산피아골단풍축제의 안전한 추진을 위해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구례군은 축제장 곳곳에 있는 공중 화장실 위생관리를 하고, 가스·전기·소방 시설 점검에 나선다.

구례군과 관계기관은 오는 3일 합동 점검에 나서 안전·교통·질서 부문을 살펴볼 계획이다.

구례군은 주 행사장은 연곡사 주차장에 운영본부와 두고 종합 상황실과 경찰·소방·의료 등 안전대책 종합 상황실을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행사장과 공연 행사 안전관리 상황을 유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갖춘다. 구례경찰서와 토지면정년회 등은 행사장과 도로변 주차 차량을 통제하고 질서 유지관리에 동참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